

[사회]

위기의 병·의원

중 역외유출 언제까지

‘上京 진료’年 1,600억 빠져 나가

직장인 이모(42)씨는 최근 몸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어 200 병상 규모의 광주 C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해도 진전이 없어 비슷한 규모의 Y병원으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감기·몸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 동안 두 병원을 전전한 이씨는 결국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고, 정밀진단 결과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200 병상 규모의 중형 병원이라고 믿고 찾았지만, 오진으로 고생만 했다”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큰 병이 나면 서울로 가라’고 하는 모양”고 씁쓸해했다.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의 ‘엑스더스’(대탈출·exodus)가 이뤄지고 있다. 매년 ‘상경(上京) 진료’가 급증하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지

의원→종합병원→대학병원→수도권 연쇄 유출
매년 급증...“지역 의료계 기반 와해될라” 우려

역 의료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고속철도(KTX) 개통 등의 탓도 있지만, 고급 진료에 대한 지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 의원급이 버팀에 물리는 것도 종합병원→대학병원→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유출의 연쇄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받은 광주·전남 환자 수는 28만4천872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04년(27만2

천42명)과 2003년(26만3천438명)에 비해 각각 4.5%, 8.1% 증가한 것이다. 이들에게 지원된 건강보험 진료비만도 1천619억원으로 2004년(1천427억원)과 2003년(1천314억원)에 비해 각각 12%, 23.2%가 늘어났으며, 그 비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광주보다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상경 환자’ 중 전남지역 환자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1천220억원의 의료비를 수도권에 지출, ▲충남(1천959억원) ▲강원(1천276억원) ▲경북(1천224억원)에



이여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유출 규모가 컸다. 하지만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찾아 떠나는 ‘상경 진료’를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환자들의 ‘엑스더스’는 그만큼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광주·전남지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2곳 ▲전문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곳 ▲지역 응급의료기관 47곳 등 총 58곳을 대상으로 시설·인력·장비 등을 평가한 결과, 절반인 29곳이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종합병원 모 원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의료계의 기반이 와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봄 햇살 가득 3월 21일 (음 2월 3일) **날씨**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조금	3~15°C
포항	구름조금	3~14°C
부산	구름조금	5~14°C
대구	구름조금	2~15°C
대전	구름조금	1~15°C
전주	구름조금	-1~15°C
충주	구름조금	-1~15°C
청주	구름조금	0~15°C
영주	구름조금	0~16°C
안동	구름조금	0~15°C
경주	구름조금	0~16°C
울진	구름조금	1~14°C
울릉도	구름조금	2~15°C
독도	구름조금	2~15°C
제주	구름조금	0~16°C
서해남부	구름조금	2~15°C
서해북부	구름조금	2~15°C
남해남부	구름조금	0~16°C
남해북부	구름조금	0~16°C
목포	구름조금	0~16°C
여수	구름조금	0~16°C
진도	구름조금	0~16°C
곡성	구름조금	0~16°C
담양	구름조금	0~16°C
영광	구름조금	0~16°C
영암	구름조금	0~16°C
무안	구름조금	0~16°C
보성	구름조금	0~16°C
고흥	구름조금	0~16°C
진안	구름조금	0~16°C
완주	구름조금	0~16°C
임천	구름조금	0~16°C
진성	구름조금	0~16°C
고령	구름조금	0~16°C
영동	구름조금	0~16°C
영양	구름조금	0~16°C
영월	구름조금	0~16°C
정선	구름조금	0~16°C
철원	구름조금	0~16°C
파천	구름조금	0~16°C
강릉	구름조금	0~16°C
동해	구름조금	0~16°C
속초	구름조금	0~16°C
홍천	구름조금	0~16°C
평창	구름조금	0~16°C
영월	구름조금	0~16°C
정선	구름조금	0~16°C
철원	구름조금	0~16°C
파천	구름조금	0~16°C
강릉	구름조금	0~16°C
동해	구름조금	0~16°C
속초	구름조금	0~16°C
홍천	구름조금	0~16°C
평창	구름조금	0~16°C

서울: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부산: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목포: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여수: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4/17	6/18	10/15	8/13	3/15	4/16

학교 부적응 청소년 대상 인성·법 교육

광주에 ‘대안교육센터’ 생긴다

광주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센터’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20일 광주·부산·대전·안산·청주·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희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법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안 및 대처 매뉴얼 개발·보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교사 대상 법 교육 연구 등의 협력사업도 실시한다는 방침

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폭력 등 교칙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재판을 통해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를 현 5개교에서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전북 무주 설천고·경남 거제 육포고 등 16개 학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부모들 새학기 관심

새 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20일 윤림중에서 열린 총회에서 참가 학부모들이 학교관계자로부터 학교 소개, 중점 교육 방침,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20일 윤림중에서 열린 총회에서 참가 학부모들이 학교관계자로부터 학교 소개, 중점 교육 방침,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 3년간 식중독 환자 1,557명

어패류로 인한 발병 가장 많아

전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모두 1천55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물로 인한 환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건(1천55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어패류 및 식육에 의한 식중독 발

생건수가 절반인 20건을 차지했다. 특히 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도 26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 섭취 장소별로는 학교 및 기업체 집단급식소 1천42명(11건), 일

반음식점 122명(10건), 가정집 31명(6건), 관공객 등 기타 362명(13건)으로 조사됐다.

식중독 원인균으로는 병원성 대장균이 5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염비브리오균 152명, 살모넬라균 39명, 세레우스균 24명 순이었다. 나머지 828명은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

식중독의 원인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해물류가 15건에 304명, 음용수가 4건에 657명 순이었다. 육류는 5건에 217명, 자연독은 2건에 10명으로 집계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교육부가 조사한 ‘묻지마 사교육’ 실태

음면·빈곤층까지 ‘과외 광풍’

초등 6학년 38% 年 100만~300만원 지출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빈곤층 자녀까지 상당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묻지마 사교육’ 광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참여 실태=조사 대상이 된 초등학교 6학년의 88.2%와 중학교 3학년생의 78.4%, 고등학교 2학년생 63.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서울 강남이 93.88%로 단연 선두였고 그 다음은 서울 81.59%, 수도권 81.3%, 광역시 77.15%, 중소도시 75.85%, 읍면지역 66.82% 등으로 조사됐다.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 100만~300만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26%, 300만~500만원 22%, 500만~1천만원 12%, 1천만~2천만원 1.3% 등으로 집계됐다.

무려 2천만원 이상을 쓴다는 응답(0.6%)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이 쓴 1천

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비율은 각각 4%와 4.8%에 달했다. ◇사교육 시간대 및 형태=초등학생의 주중 사교육은 79.8%였으나 주말 또는 주중+주말은 각각 1.6%와 11.5%에 그쳐 그나마 주말에는 학습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교생은 주말 또는 주중+주말 사교육이 각각 18.5%, 28.7%로 절반 가량이 학기 내내 주말에도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사교육 내용 및 원인=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81%, 수학 71.3%, 국어 48.7%, 과학 35.2%, 예체능 34%, 사회 32.2%, 논술 20.3%, 전문교과 3.3%로 파악됐다. 월 평균 수강료는 영어 14만2천~16만9천원, 수학 10만15천~23만3천원, 예체능 9만8천~27만2천원, 논술 8만9천~19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전체 평균 29.5%의 학부모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중학교 3학년생의 선호도는 7.7%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CANADA, SOUTHBAY COLLEGE OF TOM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한익대 입학생 모집!

고려수업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생 환영

1. 고려수업생: 고려수업생은 고려수업생입니다. 고려수업생은 고려수업생입니다. 고려수업생은 고려수업생입니다.

2. 대학생: 대학생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대학생입니다.

3. 직장인: 직장인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입니다.

문의: 한익대 입학생 모집팀
0600-0200-8253
한익대 입학생 모집팀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 0505-313-1113

방수 살아숨쉬는 고퀀릭스 방수제

드립 다목적 특수방수제

안쪽까지 방수로 고립하십시오!
부드러운 세미소프트 300% 탄력성 방수용 합수 있습니다!

방수제 사용법:
1.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2.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3.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방수제 사용법:
1.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2.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3.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방수제 사용법:
1.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2.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3.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방수제 사용법:
1.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2.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3.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방수제 사용법:
1.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2.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3. 방수제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